

“코딩 능력으로 무장한 대학생, 사회 문제 해결도 척척” GIST, 제2회 Hello World Hackathon 개최 광주·전남권 대학생 총 43명 9개 팀 참가

- ▲차별문제(Barrier-free) ▲정신건강(Mental Health) ▲환경문제(Eco-Friendly) ▲AI윤리(AI Ethics) 등 대회 당일 공개 주제로 창의적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겨뤘
- '액티브 시니어의 사회적 활동 재촉진 서비스 개발한 'DASH' 팀 AIX School 원장상 영예...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기회 되길”



▲ 'Hello World Hackathon'에 참여한 학생들이 단체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인공지능(AI) 기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2회 Hello World Hackathon'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해커톤(Hackathon) :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일정 시간동안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부터 개발까지 완료하는 행사를 말한다.

GIST 학생동아리 GCC(GIST Creative Crafters)가 주최한 이번 해커톤 대회는 GIST AI정책전략대학원(AIX School), GIST 학사기획실, GIST AI대학원, 아마존웹서비스(AWS), (주)에이트테크(AETECH), 쏘카(SOCAR), (주)클라우드 스톤(Cloud Stone), (주)메디웨일(Mediwhale)의 후원을 받아 지난 5월 10일(금)부터 12일(일)까지 GIST AI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행사 첫날인 10일에는 ▲GIST AIX School 김준하 원장의 '피할 수 없는 미래, 인공지능 그리고 생성형 AI' 강연을 시작으로 ▲(주)에이트테크(AETECH) 류재호 CSO의 'AETECH의 AI기술과 스타트업 성장기' ▲아마존웹서비스(AWS) 김병준 이사의 'AWS의 SDGs와 ESG 경영' 특강이 이어졌고, GIST 프로그래밍 동아리 'WING'과 'INFOTEAM'에서 개발한 '초보자들을 위한 교육 세션' 등 유익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예비 AI 기술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 학생들이 GIST AIX School 김준하 원장의 '피할 수 없는 미래, 인공지능 그리고 생성형 AI' 특강을 듣고 있다.

이번 대회는 ▲ **Barrier-free(차별문제)** ▲ **Mental Health(정신건강)** ▲ **Eco-Friendly(환경문제)** ▲ **AI Ethics(AI윤리)** 등 4개의 주제에 대해 광주·전남권 대학생 총 43명 9개 팀이 참가해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겨루었다.

학생들은 주체적으로 협업하여 우울감 해소 솔루션, 치매나 성인 ADHD를 위한 서비스, 팝업스토어 폐기물의 재활용 유도 홈페이지 등 창의적인 개발물을 도출하며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대상을 차지한 'DASH팀'(이수비, 양현준, 정현, 배성호, 노상희)은 '액티브 시니어'들의 사회적 활동을 재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인 'SALM'을 개발하였다. 이들은 가상의 인물인 페르소나를 지정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AIX School 원장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 **액티브 시니어** : 은퇴 이후에도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충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소비에도 적극적인 50~60대를 말한다.

최우수상인 'AIX School 부원장상'은 감정기록 지도 앱 'MOOMAP(Mood+Map)'을 개발한 '시소팀'(주서현, 한세민, 박미솔, 이신혁)이, 'AWS 특별상'은 직장인 스트레스 관리 솔루션 'SHOUT'를 개발한 '태커톤팀'(김예은, 윤민석, 김은영, 이재선, 김도희)이 수상하였다.

※ GIST 제2회 'Hello World Hackathon' 수상

구분		수상(팀)	내용
대상	AIX School 원장상	DASH	'액티브 시니어'가 은퇴 이후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 혹은 개인과 연결해 주는 서비스
최우수상	AIX School 부원장상	시소	장소에 따른 감정을 색으로 기록한 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일상적인 휴식 장소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특별상	AWS 특별상	태커톤	스트레스를 관리해 주는 서비스로, 직장인에게는 고민 상담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에는 이직 원인 등 HR 분석 데이터를 제공

대상을 차지한 DASH팀의 이수비 학생(GIST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재학)은 “중간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팀원들과 함께 도전하며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끝까지 몰입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며 우승의 소감을 전했다.



▲ 대상을 차지한 DASH팀과 GIST AIX School 공득조 부원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GIST AIX School 공득조 부원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도전적인 경험을 통해 더 많이 성장하여 지역과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거듭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